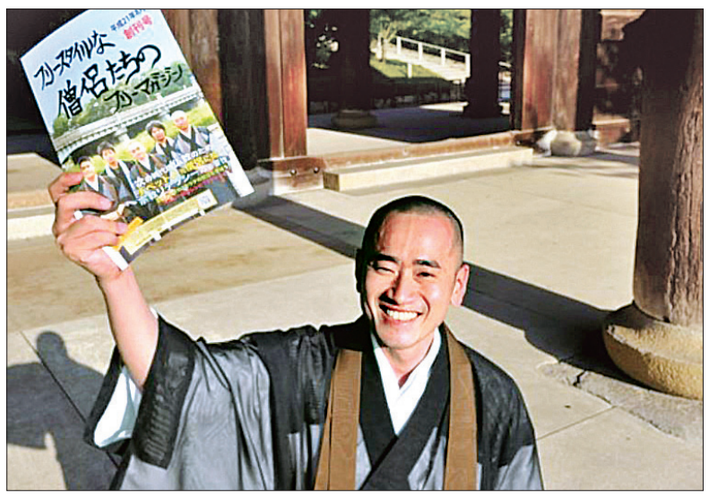
日 불교잡지 '프리-스타일한 스님들' 15주년

종단 초월 청년스님들 제작 참여
사회문제 해결 참여 스님들 소개
사찰요리 레시피, 해외불교 안내도
"사회문제 · 청년에 초점 맞추겠다"

박영빈 객원기자


15년전 창간호를 들어 보이는 초대 편집장 류호 스님.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종단을 초월한 젊은 스님들이 만드는 일본의 무료 불교잡지 〈프리-스타일한 스님들〉이 창간 15주년을 맞았다. 최근 편집장 스님이 교체되는 등 꾸준히 이어지는 이 잡지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11월 3일 특별 보도했다.

10월 초, 교토 시의 정토종 사찰 류간지(龍岸寺)에서 〈프리-스타일한 스님들〉의 역대 대표와 편집장 스님들이 한 데 모인 대담이 개최됐다. 초대 대표이자 편집장이었던 이케구치 류호 스님이 주지인 사찰로 의미가 컸다. 창간 15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는 구독자와 불교에 관심있는 시민 등 50여 명이 모였다.

〈프리-스타일한 스님들〉은 2009년 8월 창간한 잡지로 일본 전국의 회원 사찰과 연대한 카페 등에 무료 배포 중이다. 처음에는 격월 발간했으나 현재는 연 2회 발간 중이다. 초대 편집장 류호 스님은 "창간 당시에는 지금처럼 타 종단 간 스님들의 모임이나 교류가 금기시 됐는데, 인터넷 보급이 본격화되며 스님들의 교류가 시작됐다"며 "젊은 스님들이 '우리가 좋아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우리 세대에 전해야한다'고 원력을 세워 잡지라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창간 초기의 상황에 대해 회고했다.

〈프리-스타일한 스님들〉은 창간부터 교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쉽게 다루기 어려운 자살, 빈곤 등의 문제를 다루며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젊은 스님들을 소개했다. 또한 사찰요리 레시피, 해외불교 동향 등을 전하며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참신함으로 불교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킨 잡지는 곧 발행부수 1만 부를 초과 달성했다.

잡지 제작에 참여하는 스님들은 "젊은 세대에게 불교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잡지인만큼 체제 변화는 필요하다"면서 뜻을 모아 주기적으로 편집장 스님을 교체했다. 2020년 12월호부터 편집장 소임을 맡은 즈이키 스님은 출가 전 광고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잡지의 이미지 쇄신을 꾀했다. 일상대화에서 불교 요소를 찾는 '그 말은 원래 부처님 말씀 중에 있다'는 주제의 코너를 만들거나, SNS 등에서 '○○는 지옥' '헬○○'과 같은 지옥에 빗대어 회자되는 유행어를 통해 현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지옥에 대해 고찰하는 특집을 내기도 했다.

2024년 6월에 발행된 63호를 계기로 대표 겸 편집장에 취임한 하타 쇼켄 스님은 "우선은 잡지 로고부터 바꿔볼까 한다"고 웃어 보이면서 "사회문제와 젊은 세대의 마음에 집중하는 잡지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 AI 상담봇 '승려문답' 개발 '화제'

메신저 '라인(LINE)'서 활용 가능
"젊은 세대 불교 유입 계기 기대"



불교계 대화형 AI '승려문답'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출처=하스노하 공식 홈페이지

지난 2022년 서비스를 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시작으로 다양한 대화형 AI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이에 맞춰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보급 중인 가운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가능한 불교계 대화형 AI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다. 지난 11월 3일 일본의 'JB프레스'는 AI스님에게 고민상담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불교계의 대화형 AI 사례는 몇 차례 존재했다. 2021년 교토대에서 개발한 '붓다봇'은 현대인의 고민과 사회문제에 관해 불교적 해답을 주는 AI로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2022년에는 경전과 불교학자, 경영인들의 지식을 도입한 '불교철학 컨설팅 서비스'도 등장했다. 해당 AI는 회사원과 경영자들의 고민에 대해 불교 가르침에 따른 해답을 제시해준다. 두 사례에 이어 2023년 11월, 메신저 어플에서 언제나 사용 가능한 AI 서비스 '승려문답'이 개발돼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일본의 불교계 고민상담 사이트인 '하스노하(ハスノハ)'가 개발한 AI, '승려문답'은 일본의 주류 메신저 어플 라인(LINE)으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대답 형태에 따라 '선생님 같은 스님' '친절한 스님' '전직 일진 스님' 등 상담할 AI스님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세한 설명이나 일상의 대화, 상식에 관한 대답을 바랄 경우 선생님 같은 스님을, 좀 더 경전이나 불교적인 내용을 원한다면 친절한 스님을, 강한 어조로 혼내주길 원하거나 마음을 다잡아주길 원한다면 전직 일진 스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스노하 측은 "본 사이트는 10년 넘게 실제 스님과 네티즌을 연결해 고민 상담을 진행했는데 상담에 응하는 스님들만 일본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다"며 "최근 이용자가 증가해서 비교적 간단한 질문이나 고민은 AI스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AI스님이 젊은 세대를 불교와 사찰에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종교계 저널리스트로 활약 중인 우카이 슈토쿠 스님은 "앞으로 이러한 대화형 AI는 불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제 AI스님들의 답변은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해줄 수 있는 답변에 충분히 필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AI스님들의 활약이 늘어간다면 자질이 부족한 스님들이 밀려나거나, 미래에는 AI가 종교인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대통령 "세계평화 위해 佛法 논의를"

11월 6일, 아시아불교정상회의서
"증오에서 자유로운 평화 필요"


아시아불교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 중인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사진출처=비즈니스 스탠다드

인도의 드라우파디 무르무(Draupadi Murmu) 대통령이 전 세계의 여러 분쟁과 기후 변화 등 위기에서 불교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라우파디 대통령은 11월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불교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불법(佛法)은 평화와 비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있어 다르마(종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 여러 분쟁의 씨앗이 되는 '협소한 종파주의'와 관련해 "우리는 부처님의 다르마가 아시아와 세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처님에 따르면 탐욕과 증오는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탐욕과 증오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를 추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도 정부가 팔리어와 프라크리트어에 고전언어 지위를 부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젠드라 싱 셰카와트 인도 연방 문화부 장관도 "중도와 부처님의 사성제는 시대를 초월한 해결책을 제공한다"며 "오늘 이 정상회담은 불교 외교 관계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위기 극복, 불교 국가 간 문화적 유대감 강화, 불교 관광 및 순례 촉진, 고대 불교 사본 및 유물 보존 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泰 승려 "美, 이스라엘 군사 지원 중단하라"

英 미국대사관 앞서 1인 시위
"고통 막기 위한 실천 필요"



1인 시위 중인 아잔 산타마노 스님의 모습. 사진출처= 아나돌루 통신

태국 스님이 미국을 향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1월 1일 '아나돌루 통신(Anadolu Ajansı)' 등 외신은 태국 출신의 아잔 산타마노(Ajahn Santamano) 스님이 영국 런던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24시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잔 산타마노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영국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해오고 있다. 스님은 "미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의 근본적인 가해자이자 공모자"라며 "미국은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병원 폭격과 어린이 대량 학살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이 같은 시위에 나선 배경에 대해 "불교에서는 모든 유정에 대한 연민을 이야기한다"며 "실제로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인간으로서 이를 막기 위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 이후 가자 지구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잔혹한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정현 객원기자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NEW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